



제45차
HIMUN
모의 유엔 총회

THE POST-COVID ERA,

SEEKING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FOOD SECURITY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 모색

<http://himun.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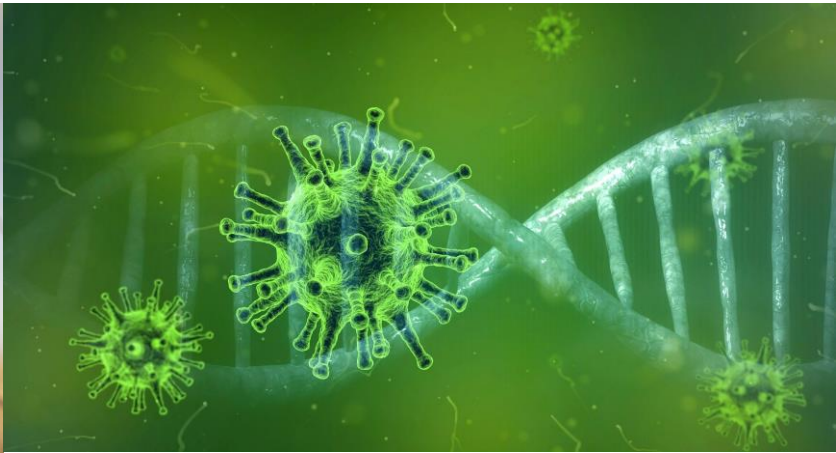
<http://www.facebook.com/himun1958>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

HUFS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

coex

CONTENTS



About HIMUN

04	HIMUN 소개
06	사무총장 김예슬 인사말
08	기획예산팀장 백희영 인사말
09	대외협력팀장 김세은 인사말
10	홍보전략팀장 안소현 인사말

축사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인철
13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박현진
14	지도교수 이기현
15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영범
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개호
17	국립식량과학원 원장 윤종철
18	주한인도대사관 공관차석 Surinder Bhagat
19	주한터키대사관 대사 Durmuş Ersin Erçin
20	주한독일대사관 대사 Michael Reiffenstue
21	FAO한국협회 회장 유병린
22	UN ESCAP-ENEA Head Ganbold Baasanjav
2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경구
24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
25	(사)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금보연
26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임정빈

총회 소개

28	UN4MUN 소개
30	의제 소개

의장 발언문 및 통역이사회장 인사말

32	의장 이승민 발언문
33	통역이사회장 이주원 인사말

기조연설문

34	캐나다 송다영
35	브라질 강호준
36	일본 김민서
37	네덜란드 박은혜
38	사우디아라비아 김다연
39	아르헨티나 장민석
40	중국 김행운
41	인도 최승주
42	한국 최민주
43	터키 김승권
44	독일 서진욱
45	베트남 이인구
46	영국 임우균
47	멕시코 이주희
48	미국 김나현
50	결의안 초안
52	Line by line review
54	최종 결의안
56	HIMUN 구성원 소개

PROGRAM



13:00-13:50	50'	개회식
		개회사 심사위원 및 내외귀빈 소개 사무총장 인사말 격려사 및 축사
13:50-14:00	10'	영상
		총회 에티켓 영상 의제 소개 영상 대표단 및 통역이사회 소개 영상
14:00-16:30	150'	본 총회
		의제와 의제항목 소개 각 국 입장 발언 결의안 상정 및 논의, 수정 및 채택 채택된 결의안 보고
16:30-16:35	5'	사무국 소개
16:35-17:00	25'	폐회식
		구성원 소개 및 인사 심사위원 총평 폐회사

HIMUN 소개

구성

사무국

HIMUN의 연간 행사 기획 및 HIMUN 총회를 지원,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HIMUN의 주축 구성원입니다. 사무국원은 매년 3월 한국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총괄 책임자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획예산팀, 대외협력팀, 학술지원팀, 홍보전략팀으로 구성됩니다.

통역이사회

통역이사회는 국내 최초의 외국어 학술 행사라는 기구의 본질을 고려하고 외국어의 학습 및 보급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매년 의제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여 배포하고 해당 국가의 간단한 인사말 등을 정리하여 보급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통역이사회의 통역사들은 총회 공개 프로그램에서 통역을 지원하고 문서 번역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총회

각 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총회는 토론을 통하여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국제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7월부터 정기회기로 시작되어, 총회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총회 공개 프로그램'에 의해 적절한 시일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총회 공개 프로그램

총회 공개 프로그램은 과거의 '모의유엔총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회 공개 프로그램은 총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여 UN에 대해 알리고 그에 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HIMUN의 구성원들이 그동안 펼쳐온 활동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INTRODUCTION

타 MUN과의 차이점



* HIMUN 총회의 대표는 각 국의 고유한 언어로 발언하며, 통역사는 이를 UN 공식 6개 언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와 한국어로 통역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인사말



사무총장
김예슬

한국의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8학번

제45차 HIMUN 모의유엔총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의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HIMUN) 제45차 사무총장 김예슬입니다.

1958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 긴 역사를 이어온 HIMUN이 어느덧 45차 총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最初)이자 최고(最古)의 모의 UN단체인 HIMUN은 국제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위한 자유, 평등, 박애라는 국제연합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젊은이들의 논의의 장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 19 팬데믹의 장기화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HIMUN은 전년도에 이어 온라인 모의유엔총회로 학술의 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총회는 HIMUN을 위한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학술의 장이라는 가치를 알아봐주시고 후원해주신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항상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학술적으로도 많이 도움주셨던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박현진 이사장님, 이철호 명예 이사장님, 김미경 사무간사님 덕분에 이번 총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상 HIMUN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응원해주신 한국의국어대학교 김인철 총장님, 45차 안보리가 발족되었던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항상 진심 어린 따뜻한 조언으로 함께해주신 이기현 지도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움 주신 학생지원팀, 전략홍보팀, 발전협력팀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총회의 학술적인 발전을 위해 자문해주는 자문위원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1년 내내 모든 준비과정을 지켜봐주시고 함께해주신 학생지원팀 양성준 대리님, 코로나로 인해 유난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음에도 HIMUN을 위해 힘써주셔서 정

말 감사합니다. 또 항상 애정 어린 마음으로 챙겨주시고, HIMUN 홍보가 더 다양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전략홍보팀 박창호 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45차 총회를 만들었던 62명의 45차 HIMUN 구성원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1년 내내 가족처럼 함께 고생했던 우리 안전보장이사회, 백희영 기획예산팀장님, 김세은 대외협력팀장님, 안소현 홍보전략팀장님,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항상 믿고 따라주었던 우리 팀장들 덕분에 힘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 유독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는데, 서로 의지하고 돕고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안전보장이사회였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꼼꼼하게 주어진 일 척척 해내었던 마음 따뜻하고 웃음 많은 우리 희영, 예산 문제나 여러모로 걱정 많고 힘들었을텐데 항상 희영이가 기뻐하셨기에 다행이었고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 고맙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도 공동주최부터 후원까지 성공적으로 해내어 총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준 세은, 막내이지만 생각 깊은 세은이가 항상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해주고 채워준 것 같아 늘 고맙고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와서 매번 우리를 놀라게했던 소현, 일뿐만 아니라 친구로서도 항상 마음 따뜻하게 받아주고 중심 잘 잡아주는 소현이가 있어 고맙습니다. 항상 힘든 내색 없이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모든 홍보 일 도맡으면서 마음고생 많았을텐데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45차 사무직원분들, 하이문의 모든 과정이 지식 이상의 더 가치있는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던 첫 오티가 떠오릅니다. 사무총장으로서 부족한 점도 많았고, 더 챙겨주지 못하고 애정을 표현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큼니다. 하지만 오늘 총회는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의 노력과 시간 하나하나가 모여 만들어질 수 있었고, 여러

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경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학술팀장으로서 5명의 학술지원팀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일할수록 성장하는 모습에 저까지 뿌듯했던 서윤씨, 항상 똑부러지게 해내셔서 걱정이 없었던 선영씨, 매번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좋은 의견 내주셨던 승민씨, 항상 질문이 가득한 만큼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었던 준혁씨, 많은 업무에도 항상 기분 좋은 미소로 임해주신 수빈씨. 갑작스레 학술팀장을 맡아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도 우리 학팀원 분들이 있었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업무에도가 변동사항에 어려운 과정이 많았던 총회 준비과정에도 힘든 내색 없이 먼저 해보겠다고, 돕겠다고 말씀해주시는 여러분들 덕에 행복했고, 학팀장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 거의 매일 함께했던 의장님, 15분의 대표단, 14분의 통역단분들. 사무총장과 학술팀장을 겸하면서 저도 부족한 점도 많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여러분의 열정으로 하나 둘 완성되어가는 총회를 보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연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정신없이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낯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대표로, 통역으로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이문에 지원해 주셔서 그리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붙여 도움이 필요할 때 흔쾌히 도와주었던 44차 사무국원 윤도, 종빈, 승구, 그리고 사무총장으로서나 학술팀장으로서 고민과 걱정 들어주고 응원해준 44차 사무총장 민영언니, 학술팀장 규림이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믿어 주시고 누구보다 저의 한 해를 응원해주셨던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제45차 HIMUN 모의유엔총회의 의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 모색' 입니다. 식량문제는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하며, 범세계적 측면에서의 논의와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안보'의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식량위기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곡물 수급 불균형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가 만연해진 이후 수출제한조치와 불안정한 국제 식량 공급 시스템 등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해진 식량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낮은 식량 자급률, 지속 가능한 농업, 식량공급망의 강화 등 국가적, 국제적 이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제45차 HIMUN 모의유엔총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하루를 위해 일 년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만든 제45차 HIMUN 총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가슴 벅찬 가치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팀장
백희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19학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내 최고이자 최대의 모의 UN, 제45차 HIMUN 총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제45차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 (HIMUN) 기획예산팀장 백희영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어 HIMUN 총회를 찾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또 한 번의 총회를 준비하면서 더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고 작년과는 다른 기획예산팀을 만들기 위해 끊임 없이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보다 더 나은 총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지난 일 년을 돌아보면 절대 쉽지 않았지만, 오늘 의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번 총회가 무사히 개최될 수 있었던 이유는 HIMUN을 따듯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올해 총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관계자분들, HIMUN을 위해 매년 지원해 주시는 김인철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응원해주시고 유익한 조언 아끼지 않으셨던 이기현 지도 교수님, 학생지원팀의 김미자 팀장님, 발전협력팀의 문은영 선생님, 전략홍보팀의 박창호 부장님 이외에 모든 선생님들께 큰 감사 드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학생지원팀의 양성준 대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부터 더운 여름까지 사계절을 함께 겪으며 정말 고군분투한 우리 안전보장이사회, 누구보다 멋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고 든든했습니다. 서로의 곁에서 응원해 주고 도와줬기에 오늘의 총회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이문을 이끌어주고 사무총장으로서 그리고 학팀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우리의 정신적 지주 예슬언니, 매번 멋진 디자인 만들어내고 언제나 완벽해서 더 든든했던 만능 홍팀장 소현언니, 회의 때마다 좋은 소식 들려주고 늘 솔선수범하며 언니들 챙겨줬던 안보리의 영원한

막내 대팀장 세은이까지 매일 하이문 생각뿐이었던 우리 안보리의 열정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45차 안보리 구성되고 마음 편히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는데, 정말 고생 많았고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 대학 생활을 돌이켜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참 소중하게 기억될 것 같아요.

애정하는 우리 기획예산팀, 사무국 면접 때 여러분들을 꼭 기팀에 데려오겠다고 했던 게 벌써 5개월 전의 이야기네요. 비록 다른 팀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 업무가 많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총회가 가능했습니다. 매번 회의 이끌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 내주셨던 은빈씨, 늘 좋은 아이디어로 행사 기획하는 데 도움 주셨던 윤교씨, 밝고 명랑한 웃음으로 회의나 팀 분위기 밝게 만들어 주셨던 지원씨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총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기팀, 올 한해 하이문과 기획예산팀이 여러분에게 뜻깊은 경험이자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총회가 있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45차 사무국, 의장님, 대표단, 통역이사회, 사회자, 서포터즈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고 진심 어린 조언과 도움 아끼지 않았던 우리 44차 기획예산팀 창범, 희진언니, 윤진언니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2년간 하이문의 구성원으로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고 멋진 분들과 총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 모색'으로 개최되는 오늘의 총회가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팀장
김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 전공 20학번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HIMUN) 제45차 모의유엔 총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제45차 대외협력팀장 김세은입니다.

44차 대외협력팀원으로 시작하여 45차 대외협력팀장으로 긴 여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HIMUN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45차 모의유엔총회까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 총회의 주인공입니다.

제45차 모의UN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HIMUN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술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서 정말 큰 도움을 주신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박현진 이사장님, 이철호 명예 이사장님, 그리고 김미경 사무간사님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도서관, 국립식량과학원, 주한인도대사관, 주한터키대사관,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한독일대사관, FAO한국협회, UNESCAP-ENEA,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엔글로벌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대자연, 힐라코리아(주), (재)현마육영재단, (주)팬코, 하영호장학재단, 하이트진로음료(주), (주)NGO신문, (주)대학저널, (주)한국농업신문사, 농업경제신문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중한 도움 덕분에, 오늘의 빛나는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한국외대 자치기구인 HIMUN을 매년 지원해주시는 김인철 총장님, HIMUN의 방향에 대해 조언해주시고, 더 나은 총회를 위하여 함께 논의해주시는 이기현 지도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HIMUN의 모든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학생지원팀 양성준 대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외협력팀. 여러분을 대외협력팀원으로 임명한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5명의 대외협력팀이 완성되었을 때, 팀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팀장이 되자는 저만의 목표를 세웠고,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적지 않은 업무에도 항상 파이팅을 외치며 컨택하고, 무엇보다 부족한 저를 믿고 6개월이란 시간동안 따라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했던 민수씨, 항상 정리를 잘해 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지수씨, 컨택 중 다양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적절하게 잘 대처하여 안심이 되었던 수민씨, 매번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 눈부셨던 총민씨까지, 여러분이 보여주신 책임감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팀장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전부, 안전보장이사회, HIMUN을 통해 안보리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추웠던 겨울부터 참을 수 없이 더웠던 여름까지 작은 연방에서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온 안보리. 함께 고민하고, 응원해가며 보낸 시간이 저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들로 기억될 거예요. 멋진 카리스마를 지닌 영원한 대장, 사무총장 예슬 언니. 막내인 저를 정말 예뻐해준, 꼼꼼한 기획예산팀장 희영언니. 멋진 홍보물을 제작해준, 항상 차분하고 따뜻한 홍보전략팀장 소현언니. 모두 저의 대학 생활에 찾아와줘서, 저의 시간을 아름답게 색칠해줘서 고맙워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오늘의 제45차 모의유엔총회 하루는 지난 1년을 사랑한 만큼 그 어떤 때보다 빛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제45차 모의UN총회, 이제 그 막이 올라갈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45차 HIMUN이 막을 내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하루를 위해 1년을 사랑한 젊은이들을 향해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략팀장
안소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전공 20학번

제45차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 (HIMUN) 모의 유엔 총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 제45차 홍보전략팀장 안소현입니다.

COVID-19로 인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총회 관람을 위해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58년에 시작된 HIMUN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올해 63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만큼 제45차 HIMUN 총회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만족스럽고 유익한 총회로 기억남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는 홍보전략팀장으로 함께하며 어떻게 하면 홍보전략팀, 그리고 HIMUN 총회를 더 발전시키고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작년과 달리 모든 업무를 책임진 팀장으로서 저의 행동 하나하나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때로는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62년 동안 길을 닦아 주신 HIMUN 선배님들의 노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그 명성에 걸맞는 성공적인 총회를 개최하고 싶었습니다.

HIMUN 총회는 모두가 함께 엮기에 가능했습니다. 우선 공동주최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셨던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외대 김인철 총장님,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았던 이기현 지도교수님, 그리고 전략홍보팀, 학생지원팀, 발전협력팀의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HIMUN이 오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도와 주시고 흡스온과 협업을 지원해주신 전략홍보팀 박창호 부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한국외대 선배님이시자 이번 HIMUN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보도를 도와 주신 한국NGO신문 정성민 기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많은 도움과 응원을 해준 44차 홍팀장 건희, 홍보전략팀에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오늘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가까운 시간동안 우여곡절을 함께하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우리 안전보장이사회,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했으며, 모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총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와 함께 이례적으로 학술지원팀장까지 맡아 가장 수고가 많았던 예슬, 친구이지만 언니처럼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척척 해결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항상 힘을 얻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며 도와주었던 희영, 기팀 업무와 예산 관리만으로도 머리가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따뜻하게 웃으면서 도움을 주어 저에게 비타민이었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실적을 내주었던 세은, 막내인데 대외적인 업무를 책임지느라 마음 고생이 많았을 텐데 힘든 내색없이 해내고, 언제나 먼저 언니들을 걱정해주며 챙겨주어 고맙습니다. 열정적이고 마음이 따뜻한 우리 안보리 덕분에 힘든 시기에 웃으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 첫 번째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소중한 친구들로 남아주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보전략팀, 많은 업무로 고생이 많았을 텐데 끝까지 따라와주어 너무 고맙습니다. 놀라운 디자인으로 HIMUN을 멋지게 만들고 꾸며준 유진씨, 활동을 위해 먼 거리에서도 달려와 고생이 많았을 지현씨, 중간에 부상으로 휴학 활동이 어려울까봐 걱정했지만 그럼에도 항상 열정적으로 임해준 해담씨, 항상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활동해주어 고맙었던 은빈씨, 작모총부터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어 놀라웠던 아람씨까지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홍팀을 할 수 있어 행복했고 모두에게 의미 있는 추억과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2년간 대학생활의 전부였던 HIMUN을 통해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경험을 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수많은 추억들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HIMUN이 오랜 역사를 이어가길 바라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총회를 준비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인철

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의 제45차 모의유엔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이하 HIMUN)은 1958년 국내 최초(最初) 외국어 학술단체로 출범하여 해마다 모의유엔총회를 개최하였으며, 63년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45차 HIMUN 모의유엔총회 의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 모색’입니다. 세계 인구 중 무려 6억 9천만 명이 기아로 고통받는 현실에서 식량 안보 협력은 국제사회의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수출입제한, 공급망 붕괴 등 국제협력의 위기 상황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각 국가의 시각과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관심을 드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도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HIMUN 모의유엔총회가 금년에도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재들의 역량과 기상을 보여주는 뜻깊은 무대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 60여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국제전문인력을 배출해왔습니다. 그리고 HIMUN의 모의유엔총회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제적 인재 양성의 산실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HIMUN을 거쳐가는 모든 청년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빛나는 주역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45차 모의유엔총회를 위해 함께 땀 흘리며 준비해 온 HIMUN 사무국, 대표통역단, 사회자 그리고 서포터즈 모두에게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의 주인공입니다. 학생들을 헌신적으로 지도해주신 이기현 LD학부장님, 행사 준비 및 심사에 도움 주신 모든 교수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박현진 이사장님, 이철호 명예 이사장님, 김미경 사무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를 위해 1년을 사랑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박현진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제45차 모의유엔총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금 화두에 오른 식량안보가 주제로 선정되고, 이렇게 축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식량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전체 식량에너지 자급률이 약 70%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급률이 50%가 채 되지 않고, 곡물자급률은 23%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식생활의 고급화/다양화 등이고, 결국 국내 생산 식량으로는 전체 수요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해 식량위기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견해오던 세계 식량부족 상황을 코로나 팬데믹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세계무역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28개국(EAEU 포함)이 곡물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중장기적인 식량안보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입니다. 식량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식량을 다른 나라에 70%이상 의존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2010년에 설립되어 작년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재단이 한 일이 바로 이러한 식량위기를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중 일례가 '식량낭비 줄이기'입니다. 곡물 수입의존도가 이렇게 높음에도, 우리는 현재 식량의 1/3을 버리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식량낭비를 반으로 줄여 식량자급률 15% 올리는 것을 목표로 여러 방안이나 로드맵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말에 시작한 '식량낭비 줄이기 나의 액션' 쓰기 캠페인 등 소비자 인식과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국가식량안보를 위해 식품산업 신기술 모색과, 식량비축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세계적으로 식량재난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식량안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한층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박현진



지도교수

이기현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기현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HUFS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 - HIMUN)의 제 45차 모의유엔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HIMUN은 6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모의유엔단체입니다. 매년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과 학술의 장을 제공하여 우리 젊은이들의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훌륭한 전통을 잇기 위해 노력해 준 2021년 HIMUN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의 출현은 우리 일상도 바꾸어 놓았지만, 국제사회의 모습들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국가이기주의,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확대되면서 반세계화의 조짐들이 나타났고, 국제 교류 및 협력 등이 약화되면서 국제적으로 빈부차 및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보급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평등 현상이 일어났고, 경제적 불평등은 식량 공급의 위기까지 초래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거의 7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기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그동안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많은 한계를 노정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19 팬데믹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 이슈는 당연한 국제이슈입니다. 범세계적 노력과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한 국제 다자협력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 협력의 대표적 상징인 유엔(UN)의 역할과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미래의 국제 전문가를 꿈꾸는 우리 학생들이 이번 모의 유엔 총회를 통해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총회를 준비한 HIMUN 대표단, 사무국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인철 총장님 이하 학교 관계자와 동문 그리고 행사 후원을 해주신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등 부처 및 기업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HIMUN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적인 회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영범입니다.

한국외대 모의국제연합의 마흔 다섯번째 모의유엔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대학생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진지한 고민과 열정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식량안보에 있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과거 식량위기가 흉작 등 수급 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물류 차질, 수출 제한 조치 등 새로운 형태의 불안요인으로 식량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기아 인구는 약 8억 1천만 명으로 전년보다도 1억 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UN은 기후변화와 국지적인 분쟁,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세계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기아 종식과 식량안보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까지의 길이 조금 더 멀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 강화, 기후변화나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는 그 영향이 광범위한 만큼 개별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국가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 모색'이라는 이번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식량안보 논의도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식량·농업을 다루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나 세계식량안보위원회 (CFS) 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외에, G20도 식량안보를 올해 외교·개발장관회의 선언문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UN 총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될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UN Food Systems Summit) 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식량안보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정책 역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인 만큼 먼저, 밀·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 강화 및 국제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환경·건강·안전 등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먹거리 종합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또한,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투명하고 원활한 무역, 지역단위 생산·소비, 농업·농촌의 에너지 소비 전환, 스마트 농어업 등의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폭넓은 안목에서 꾸준한 노력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모의 유엔총회가 위와 같은 식량안보 상황 및 이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당면한 먹거리 문제 해결에 초석이 되길 희망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영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개호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에서 개최하는 제 45 차 모의 UN 총회를 통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시는 의료진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악재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 농축수산물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시기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 모색의 제45차 HIMUN 모의UN총회를 함께 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장기간의 이동 제한,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우리 농어촌은 식량 생산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농어민과 서민층,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모든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국제적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2021년은 식량안보를 다루는 글로벌 정상회의의 2개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P4G 정상회의'의 '식량·농업 세션'과 '2021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확립에 대한 다자협력을 모색하는 논의가 각각 5월과 9월 개최되며, 이를 위한 국내적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준비하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내 논의'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주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먹거리 기본권의 중요성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점에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45차 HIMUN 모의UN총회를 통해 식량안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와 미래를 위해 유능한 청년들이 학술의 장을 펼치는 기회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농식품의 생산과 공급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적극적인 참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정적인 식량 수급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45차 HIMUN 모의UN총회를 거듭 축하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식량과학원장 윤종철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의 제45차 모의유엔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근 폭염과 태풍, 온난화 등 빈번해진 이상기후로 식량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각국이 자국 식량안보를 위해 곡물 수출을 점검하는 요즘, 곡물 수입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식량안보 강화가 중요한 핵심 농정 과제입니다.

코로나 19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 생활 저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상황 종식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종식 뒤 펼쳐질 변화된 생활과 뉴노멀, 넥스트 노멀 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가치와 기준에 대해 모색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 모색'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생산성 높은 우수한 품종의 개발·보급과 기계화·자동화·농지범용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다양하고 차별화된 수요처 창출 등을 통해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농업 기술들을 개발,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식량안보를 위한 의견을 듣고 연구에 반영하기 위한 대내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이제 생산 현장 뿐 아니라 가공, 유통, 소비 등 농업 활동의 전 과정으로 범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의 독보적 발전이 아닌 대내외 부서·기관 간 의견 교류와 확산, 산학연과의 데이터 개방과 공유, 연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자협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HIMUN의 모의유엔총회 개최도 그 일환일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총회에서는 논의된 의제들이 다양하고 유익한 결과로 창출돼 식량안보 제고와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식량과학원
원장

윤종철



Deputy Chief of Mission,
Embassy of India, Seoul,
Republic of Korea

Surinder Bhagat

Congratulations t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or conducting the 45th General Assembly (GA) of HUFS International Model of United Nations (HIMUN). The timing of organising the General Assembly is apt as the entire global community is grappl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which has infected more than 194 million people, leading to more than 4.1 million deaths worldwide over the past one and half year.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the pandemic, especially for the vulnerable sections of the security, is beyond imagination. The disruption of global supply chains has led to re-thinking in terms of over reliance on one particular destination or geography. There are growing number of voices supporting that the post-COVID-19 era global architecture should be premised on green-growth, robust supply chains and resilient and sustainable globalization. Global efforts, therefore, are required for enhanced investments in better pandemic response mechanism, address structural and systemic inadequacies in universal healthcare system, equitable access to food resources and greater accountability. In this context, this year's topic for the HIMUN, "Post-COVID Era, Seeking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Food Security" is topical and pertinent.

The COVID-19 pandemic has pushed millions of people into poverty. As per the World Bank data (June 2021), the pandemic has forced 97 million more people in poverty across the globe. Low-income countries and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are expected to see further increase in poverty level in 2021. We all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food security as an important tool to address poverty. Further, achieving food security is one of the important goal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pecifically SDG-2.

Food insecurity is not a new problem, but it has been accentuated by the ongoing pandemic. For achieving food security,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in the economic reactivation policies in the post-COVID-19 context becomes critical. Recognizing and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the Government of India has taken pre-emptive measures to support those adversely affected by providing them direct support and assistance, and insulate them from the adverse impact of COVID. The government had made free food available to over 800 million people over a period of 8 months during the pandemic. This is more than the population of entire Europe put together.

The Government of India firmly believed in our ancient wisdom of *Vasudhaiva Kutumbakam* i.e. the whole world is one family. As a net security provider in the Indian Ocean region and responsible country, India took cognizance of the challenges posed by the pandemic and provided relief and assistance to several other countries. India deployed its naval resources INS Kesari in May 2020 on a special relief 'Mission Sagar' to deliver essential medical and 580 tonnes of food supplies in addition to two medical assistance teams to the Maldives, Mauritius, Madagascar, Comoros Islands and Seychelles. In October 2020, the INS Airavat was deployed with food aid to South Sudan, Djibouti and Eritrea. India also provided medical support and food aid to Nepal and Afghanistan, and contributed US\$10 million to the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COVID-19 emergency fund. Despite the pandemic, India remained unwavering in its commitment to ensure that supply chain of essential food commodities to countries in the Gulf region is not disrupted. The framework for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India and Africa mentions food security as a key pillar of India-Africa partnership.

Climate change is affecting lives of the people worldwide, and poses threat to the production of food. Indi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fora and implemented measures to address climate changes. India has taken a number of innovative steps towards clean energy, energy efficiency, afforestation and bio-diversity. India is among the few countries which have achieved its target goals under Paris Accord well in advance. India welcomes partner countries / organizations to create templat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can help developing countries needing affordable access to green finance and clean technologies. India has taken lead in some of the global initiatives like International Solar Alliance, LeadIT, and the Coalition for Disaster Resilient Infrastructure, which have a strong bearing on the food security.

I am confident that the delegates of the 45th GA will deliberate upon these and more aspects in greater detail. The policy outcomes emanating from this platform will be of interest to one and all.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such discussions will not only hone problem solving skills of the discussants but also help in appreciating nuances of political, socio-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which go into international negotiations and policy making. I wish all the participants good luck and look forward to your enriching discussions and insights.

Distinguished Professors,

Dear Model UN Delegates, students and friends,

Anyo Haşimnıka

The Turkish Embassy in Seoul has always had close and warm relations with the Hankuk University, which I believe deserves high praise for its excellence in education, as well as for organising meaningful and valuable events, such as the HUFS Model United Nations (HIMUN) General Assembly.

It is also commendable that HIMUN is the first foreign language academic event in Korea since 1958, and has broad attendance from universities, academia as well as embassies.

This year's Model UN General Assembly's agenda of "Post COVID Era, Seeking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Food Security" is of high relevance and importance.

The COVID-19 pandemic has hit all countries in similar, yet unprecedented ways, threatening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s and our accustomed way of living.

The interruption of supply chains and quarantines have led to bankruptcies, loss of jobs and livelihoods. More dramatically, it has hit the most vulnerable groups and caused food shortages in some parts of the world.

On the bright side, the pandemic has also made us realize, more profoundly, the valu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at, no nation can cope with the level of complexity and magnitude of global challenges, alone.

Finding lasting and successful solutions to global challenges, requires each and every country to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joint efforts. In this process, it is important to not regard international affairs as a zero-sum game, where one wins and the other loses, but endeavor to find solutions that will benefit all parties.

As the Model United Nations, you will experience, first hand, a truly international platform, where you will discuss issues of common concern and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s and compromises, hopefully reach common ground for acceptable and lasting solutions to the issues at hand.

I am confident that, the young and fresh minds of the model UN General Assembly, will come up with novel and creative ideas and recommendations on current issues such promoting multilateralism for food security, which I hope will also inspire actual UN decisions.

The model UN, I believe, will be a unique and valuable experience for my young friends, as the aspiring future leaders and decision makers of their countries.

Once again, I congratulate HUFS and all students, and wish you, success and happiness in your lives and future career paths.

Kansamnıda



Ambassador of Republic of
Turkey to Korea,
Turkish Embassy In Seoul

Durmuş Ersin Erçin



German Ambassador to Korea,
Deutsche Botschaft Seoul

Michael Reiffenstue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HIMUN on the 45th Model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is year's theme of "Post-COVID Era, Seeking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Food Safety" is timely and reflects the importance of multilateral collaboration for tackling food security and food safety challenges - not least those highlighted or even brought by the Covid-19 pandemic.

Food safety is a shared responsibility between governments, producers, and consumers. To feed 10 billion people by 2050 will require productive, efficient and sustainable food systems that produce safe, nutritious, affordable and healthy food for everyone.

Another issue i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food safety. While the impact is not even across different food systems, the burden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ffects particularly small-scale farmer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poor consumers.

In the recovery from the COVID-19 crisis, building and strengthening sustainable food systems that are adaptive to climate change, including resilient supply chains and an open and predictable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 must be a core prio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ermany is committed to promoting food safety globally, including under the umbrella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European Union, by working hand in hand with International Organisations, such as the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and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civil society initiatives as well as the private sector who have accumulated relevant expertise and experiences in this field.

I would like to encourage delegates from all the different member states of the HIMUN to fill the conference with their enthusiasm and share creative ideas.

내외귀빈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늘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 제45차 모의유엔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과 학생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한 코로나19는 사람의 생명에 위협은 물론 활동과 이동까지 제약함으로써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분쟁에 더하여, 식량공급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러한 상황은 세계 식품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제들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비롯한 5개 국제기구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영양부족인구는 전체 인구의 10%인 약 8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2019년보다 약 1억 명이상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주된 요인으로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초기에는 식량공급 체인이 제대로 작동될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식량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조치는 식량수입국은 물론 식량수출국에도 부정적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제한조치를 완화하였으며, 현재는 무역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농업과 식품소비가 존중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식량잉여국에서 식량부족국으로 식량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역은 식품소비를 다양화 하고 영양균형을 개선하는 유용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역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해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우리가 필요한 식량의 절반 정도를 무역을 통한 국가 간 식량의 이동에 의해 조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공정한 다자간 무역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편, 현 추세로는 2030년까지 UN이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의 팬데믹 상황은 세계 농식품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보다 의미 있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농식품시스템 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12월 성장을 위한 영양(N4G)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회의를 계기로 기아 및 영양 관련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외 귀빈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식량안보가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안보를 보장하는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효과적인 다자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열린 토론을 통해 세계 각국의 식량위기 실태와 농식품시스템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더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번 총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사무국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FAO 한국협회
회장

유병린



Head of East and North-East Asia Offic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Ganbold Baasanjav

Welcome delegates and distinguished guests to the 45th Model UN General Assembly hel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 or HIMUN.

I wish to commend the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this event, which provides a unique platform to discuss the important topic of “Post-COVID Era, Seeking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Food Security”. The theme of this year’s meeting is one of the key considerat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s closely related to SDG 2 on zero hunger.

The COVID-19 pandemic is a human crisis that jeopardizes food security and nutrition of millions of people. In fact, before the crisis,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were already suffering from starvation and malnutrition. Unless immediate and coordinated action is taken, more people will suffer from a global food emergency.

The pandemic has impacted the global food system, with all actors being affected. For example, border restrictions and lockdown have slowed down harvests, affecting the livelihood of millions of workers. Meanwhile, food markets and food processing plants are being forced to close in many locations due to the disruption of supply chains and decline in consumer demand. While many people in urban cities struggle to access food supplies, farmers have been burying perishable products. Moreover, high levels of unemployment, loss of income, and growing food costs are the barrier to food access.

As countries continue to implement relief and stimulus policies, the needs of food system actors require special attention. For instance, targeted measures on vulnerable firms and households are crucial to alleviate liquidity constraints, as well as support continued production and people’s access to food and nutrition. Also, government procure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are key to maintain the food system functioning and to avoid food price inflation.

More importantly, addressing the COVID-19 crisis requires us to work together across sectors and borders both to mitigate the immediate negative impacts and to reshape food systems. As the Asia-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21 pointed out, the wider adoption of a holistic food system approach is more urgent than ever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food security is essential to strengthen post-COVID recovery for all. Supporting countries in need with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financing options (e.g., deployment of international funds) is necessary to address the disruptions in the food systems. In the long-term, resources should be used to invest in resilience rather than subsidies, thereby building more efficient, sustainable, and resilient food systems.

The pandemic has revealed our fragility, but also the interconnected nature of our world. It is a wake-up call for us to work together to address food insecurity among other global challenges.

To build the sustainable future we want, multi-stakeholder collaboration is required at all levels, and we must cooperate in crisis response and recovery measures. We must provide food security to our people and help them harness the benefits through sharing experiences on lessons learned from other countries.

This September, the UN Secretary-General will convene a Food Systems Summit to discuss new actions, innovative solutions, and plans to transform food systems and leverage these shifts to deliver progress across all of the SDGs. It will offer a catalytic moment for global public mobilization and actionable commitments to invest in diverse ways to make food systems inclusive, climate-smart and resilient, and support sustainable peace. I encourage you to engage in the Summit and related dialogues. Anyone can be a food systems hero!

Dear delegates, in a crisis where time is of the essence, your voices and suggestions are crucial to shaping the future we want and make it a reality. I hope you could actively contribute your ideas to create a better and more sustainable world for all.

I wish you all fruitful exchanges and a successful event.

45차 모의유엔총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1958년에 시작된 모의유엔총회가 한국 학생들에게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온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보건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니 모의유엔총회의 주제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현재 인류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지구적 과제라는데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뛰어넘는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진국들은 자국민 전체가 접종하고도 남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해 두고 일상 복귀를 서두르고 있지만, 저개발국들은 부족한 백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우선하는 '백신 민족주의' 로는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며, 세계는 국제 보건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2월 전문가로 구성된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IBC) 와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COMEST) 는 평등한 백신 보급을 위한 연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은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가 하나임을 증명할 때이며, 그렇게 연대해야만 기다리던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다행히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기구들은 백신 보급이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한 행동을 촉구해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백신연합 (GAVI) 등은 코백스 퍼실리티 (COVAX Facility) 를 설립하여 중-저소득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는 특정 국제기구가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국가이며 우리 인류 자신입니다. 이번 모의유엔총회에서 이런 점을 마음에 새기고 논의에 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아가 유엔이 추구하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의유엔총회에 참가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논의하는 여러분의 열정을 지지하며, 이 경험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밑받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경구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제45차 HIMUN 모의 유엔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5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5차에 이르기까지 「외국어 학술 및 모의 UN총회」를 개최해오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 HIMUN의 성실과 저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이번 대회의 주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 모색”이라는 점에서 인류 생존의 기본이 되는 ‘세계 식량 문제’에 대한 HIMUN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엔개발정상회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제 2항목인 「기아종식」을 근거로 하는 농업부문은 빈곤퇴치, 교육, 물 이용, 에너지 이용, 경제성장과 고용,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생태계 보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농촌은 식량생산의 기능에 한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 받아왔으나 최근 들어 대기정화, 홍수방지, 자연 경관의 보존, 생태계 유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공동체 유지 등 대체 불가한 다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임을 비로소 인식하고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인류 생존으로부터 출발해 사회문화적, 경제적, 생태적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되는 농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한층 더 새롭게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량주권을 지키며 축적된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농업 선진국을 지향하며 인류 평화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리더 국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농업의 중요성과 다원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난 30년간 도시농업의 선봉에서 서서 농업·농촌의 가치와 의미를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고 전국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촉진해왔습니다.

또한 농업이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다양한 사업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힘써왔으며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시농업의 방향성을 모색해 「치유농업, 곤충산업 육성, 디지털농업과 전문인재양성」이라는 4대 혁신과제를 수립, 여러 기관·단체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신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개최되는 농업을 주제로 한 제 45차 모의 국제연합회의의 개최를 환영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농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미래의 주인공,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먼저 제45차 HIMUN 모의유엔총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총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 안보를 위한 다자협력 모색'을 주제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과 공동으로 개최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COVID-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글로벌 식량 위기 상황, 저조한 식량 자급률,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정책 등 폭 넓은 문제를 세계 각국의 학생, NGO단체, 정부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식량 증대를 위한 좋은 방안을 발굴하길 기대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한 식량 확보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가공식품의 표시사항인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여 소비 가능한 식품이 폐기되는 사례를 줄이고 지구 환경 보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식용 가능한 곤충을 식품의 원료로 확대 인증하여 저비용으로 단백질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비동물성 단백질 식품(식물성 단백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축산물 제조·판매영업자와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들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환경이 더욱 개선되어 위생적인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오딧 업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5차 모의유엔총회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성공적인 총회가 개최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김보연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원장

임정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임정빈입니다.

먼저 제45차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HUFS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 - HIMUN)의 모의유엔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의 축제인 모의국제연합 행사에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이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모의유엔총회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들에 대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한국 대학생들의 국제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HIMUN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사회의 모습들을 크게 바꾸었으며, 현재도 인류는 다양한 형태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당면한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글로벌 밸류체인 장애로 촉발된 식량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사회는 보호무역주의 및 식량 수출제한 강화 등의 조치들을 시행하며 서로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함께 국제식량 무역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6억 9천만명, 전 세계 인류의 8.9%가 기아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식량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은 빈곤 국가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제적 식량위기로부터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산학협력, 지역협력,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하고 안전한 미래먹거리를 만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기업들과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평창,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히 협력 중입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등에 아직 도 많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들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농업교육기관 설립 등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전 세계의 기아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없는 열정을 가지고 모의유엔총회를 개최한 HIMUN 여러분의 노고를 응원하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HIMUN이 표명하는 '자유, 평등, 박애'의 기본이념을 가슴에 품고, 인류와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UN4MUN 소개

About

유엔 공보국(UNDPI)는 유엔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모의유엔 역시 실제 유엔 총회와 유사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UN4MUN을 만들었다. UN4MUN은 모의유엔회의의 형태로 유엔 총회 및 유엔 안보리의 실제 회의 과정을 담은 형식이다. 이후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에서 세계 최초이자 가장 정확하게 이 회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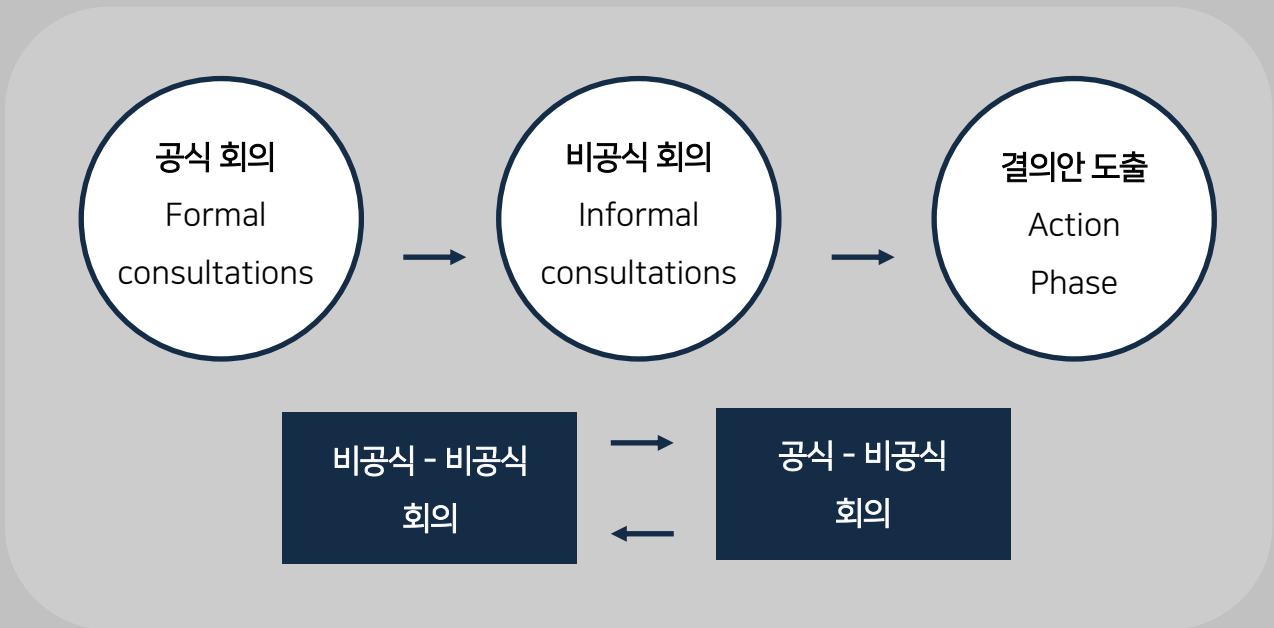
Difference

기존 MUN	UN4MUN
의장단의 높은 권위	대표와 동등한 의장단
엄격한 의사규칙과 용어	의회의 형식과 용어 사용 부재
투표를 통한 결의	Consensus 개념 적용

Consensus

Consensus란 투표를 통하지 않고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결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MUN과 달리 모든 국가의 입장이 반영되는데, 이 경우 결의안이 매우 포괄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 이로 인해 총회의 결의안은 매우 포괄적인 동시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유엔 총회의 특성을 나타낸다.

Procedure



1. 공식 회의

각 국 대표들이 의제에 관한 대략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기초연설 진행

2. 비공식 회의

비공식-비공식(Informal-Informal), 공식-비공식 회의(Formal-Informal)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모든 국가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됨

비공식-비공식 회의 국가들끼리 2가지의 기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지리적 인접국들끼리 구성하는 것과,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끼리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구성된 협의회들은 토의를 한 후 1차적인 결의안을 작성한다.

공식-비공식 회의 '라인 바이 라인 리뷰(Line by line review)'를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각 국 대표들은 의장 주도 하에 협의회들이 제출한 결의한 항목을 본국의 정책에 비추어 각 항목별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항목은 넘어가지만, 한 국가라도 이견을 가진다면, 항목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제기된 이의에 다른 국가들도 동의를 표할 경우에는 결의안을 즉시 수정하고, 이의에 반대하는 국가가 한 국가라도 있을 경우 기호 표기 후 다음 항목으로 넘어간다. 이때 넘어간 항목에 대한 논의는 다시 진행될 비공식-비공식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후 공식-비공식 회의에서 '라인 바이 라인 리뷰' 또한 다시 진행하여, 모든 국가가 동의하는지 항목별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든 국가가 동의할 수 있는 결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반복된다. 이 과정을 통해 모든 국가들의 의견이 합치된 결의안이 완성된다.

3. Action Phase

국가들이 작성된 결의안에 대한 최종적인 동의를 표하고, 합의된 결의안이 통과되며 회의 종료

* Consensus는 사전적 정의인 만장일치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모든 국가가 하나의 안건에 전적으로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사전적 정의와 차이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 모색

식량안보 정의 (FAO)

모든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언제나 자신의 섭취욕구와 식품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태

식량안보 4대 측면 (FAO)

가용성	접근성	안전성	활용성
식량안보의 공급측면을 말하며, 생산이나 재고 및 운무역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 수준의 충분한 식량공급이 가구 수준의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하지 못한 식량 접근성에 대한 정책은 소득, 지출, 시장, 가격 등에 초점을 맞춘다.	식량섭취가 충분하더라도 식량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영양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 날씨, 정치 안정, 경제 요인(실업, 식량 가격 폭등 등)이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충분한 에너지와 영양분 섭취에는 바람직한 보살핌과 급식 방식, 식량준비, 식단의 다양성, 가구 내 식량 분배 등이 필요하다. 소비된 식량의 생물학 측면의 활용과 더불어 개인의 영양 상태를 결정한다.

식량안보 중요성

당위성	식량안보는 인간의 기본권 측면에서 '의식주'의 한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다. 빈곤과 만성 영양실조가 매우 높은 국가는 인적 자본 개발에 한계를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빈곤, 불평등, 만성 영양실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안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식량안보와 경제성장의 관계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 인프라 확충으로 식량안보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안정적 식량의 공급과 영양학적 측면에서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이처럼 식량안보와 경제성장은 상호작용하며 둘의 향상을 통해 사회 전체적인 후생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식량위기 원인

애그플레이션이란 세계 곡물 가격의 급상승을 뜻하는 단어로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식량 위기의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애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세계적인 곡물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곡물 재고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몇몇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수출 제한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식량 위기의 원인을 공급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지구온난화, 가뭄, 폭우 등 완전한 해결방안이 없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곡물 생산량 감소가 주원인이다.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중국, 인도 등 인구 대국의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 있다. 심각해지는 에너지 고갈과 유가 상승에 따라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바이오 에너지 원료가 되는 옥수수 등 곡물의 재배면적 증가로 밀과 콩의 재배면적이 감소했다. 또,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곡물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수출국들이 곡물에 수출세를 부과하거나 수출제한조치를 강화하였다. 마지막인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와 물류비 상승, 달러화 약세와 미국의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곡물 가격 상승이 식량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COVID-19와 식량안보의 연관성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 이후, 국제적 식량안보에도 큰 타격이 있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가 불러온 국민의 불안감은 자국 중심주의, 곡물 수출 제한 및 금지에 대한 요청과 타국으로의 이동제한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다수의 국가가 곡물 수출을 중단하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다수의 국가가 강화된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하였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들은 타국과의 교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동제한 및 국경 폐쇄를 시행하는 등, 국제적 식량 공급 시스템의 피해가 발생했다. 더해서, 이러한 식량 공급망의 피해는 식품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각국 국민의 식량 접근성의 급격한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또,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공공 급식 중단, 농식품 경영체의 감소 및 소매점 식품 가격 증가, 식량 접근성과 영양소 공급, 농업 인력 및 곡물 무역 감소는 지속될 것이고 이는 세계의 식량위기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량안보에 대한 주요 국가의 입장

대한민국	중국	미국
<p>한국은 현재 낮은 식량 다양성과 타국에 대한 높은 식품 의존도로 불안정한 식량안보 상황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타국과의 지속적인 식품 조달 시스템 구축을 원하고 있다. 또, 한국은 현재 뛰어난 ICT 기술력을 가진 나라다. 5세대 통신 및 인공지능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를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여 세계식량안보에 발전에 힘쓰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식량안보에 있어 곡물 수입을 우선시하고 있다.</p>	<p>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지닌 나라이다. 국가 내의 식량안보 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다. 식량의 최고 수출국 중 하나로, 코로나 사태에도 타국에 대한 곡물 조달을 원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시장개발과 자원 수입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타국의 농업 토지를 개발하여서 자국의 식량안보 강화를 원한다.</p>	<p>미국은 자국내 식량안보에 있어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 타국을 향한 지원 및 협력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로 인해, 현재도 타국과의 교류 및 곡물 조달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다. 허나 중점적으로 봐야할 점이 있다면, 미국은 현재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무역이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 이는 어느정도 보호무역 주의로 보여질 수 있다.</p>



의장
이승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17학번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제45차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HIMUN) 의장 이승민입니다. 2021년도 물 흐르듯이 흘러 벌써 8월이 다가왔습니다. 바쁜 일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45차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HIMUN) 총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총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총회의 의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 모색”입니다. 식량안보는 우리 모두가 오랜 기간동안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2007년도에는 전 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애플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고, 2008년도에는 중국과 인도의 수요 급증, 바이오원료 붐,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글로벌 식량위기가 발생했습니다. 2011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의 작황 악화, 2014년 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도 모두 식량안보를 위협해왔습니다. 각국은 여건에 따라 식량문제에 다양하게 대응해왔고, G20 농업장관회의, FAO, WFP 등 국제 연대에서도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자국의 안정적인 식량 수급을 위한 수출제한 조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물류침체 등과 같은 팬데믹 상황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세계적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코로나19로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계기로 식량안보에 대한 각국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모아야 합니다.

각 국가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제한시키거나, 거리두기 정책을 실행하고,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방역문

제가 방향을 잡으면 경제활동과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큰 혼란이 왔던 글로벌 곡물 사슬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 연대와 다자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글로벌 식량안보에 대한 하나의 협의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 모색”이 이번 총회의 의제로 선정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회는 캐나다,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한국, 터키, 독일, 베트남, 영국, 멕시코, 미국 총 15개국이 참여하여 각국의 입장을 표명할 것입니다. 저희 대표통역단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은 지난 수개월간, 각국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총회 또한 보다 더 전문성 있고, 완성도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내외 귀빈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오늘 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역이사회장 인사말



통역이사회장
이주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외교통상전공 19학번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이번 제45차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 국제연합(HIMUN) 총회의 통역이사회장 및 한국어 통역을 맡게 된 이주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이번 모의 국제연합 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총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주신 이번 총회의 안전보장이사회, 사무국, 대표단, 통역이사회, 사회자, 서포터즈 및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74년 세계식량회의에서부터 시작된 식량안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 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기상이변과 같은 세계적인 이슈들로 인하여 식량안보는 개인의 생계유지 문제를 넘어 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커다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 곡물 시장과 해운 상황이 큰 영향을 받으며 식량 공급이 급격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국의 봉쇄 정책을 초래하였고,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제적·정치적 입장차이 또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식량안보'에 대해 국가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기에 각 국가는 정치·경제·외교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자국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자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UN 가입국 193개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언어를 통한 정확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총회 속 통역사의 사명은 국가 간의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국 대표와 청중을 연결해주는 총회의 중간 다리 역할을 완벽히 해내는 것입니다. 통역이사회는 이번 총회에 참가하는 각 국과 협의체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회의와 훈련을 거듭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14명의 통역 이사회는 약 150분의 총회와 마지막 폐회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니다.

끝으로, 이번 제45차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 총회가 참석하신 내외 귀빈께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번 총회가 국제사회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대표
송다영

Queen's University, Canada
Commerce 20학번

Canada

기조연설문

Honorable chair,
Delegates from each country,
And distinguished guests,
Pray for your safety and peac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world is experiencing global food crisis.

In this respect, Canada assures active engagement in the peaceful resolution of food secur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ince Canada has valued the multilateral diplomacy, Canadian government has committed favorable views on sovereignty, respect, human rights, and peace in all countries.

Therefore, Canada will strengthen the agricultural sector so that citizens are able to access safe, reliable, and 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 in terms of food security.

Canada promises to show active commitments to multilateral cooperation along with the Canadian Agricultural Partnership.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장님,
각국 대표단,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현재 전 세계가 COVID-19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본국은 이에 유감을 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식량안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캐나다는 다자외교를 중시해 왔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주권, 존중, 인권, 평화에 대해 우호적인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안보 차원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농업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캐나다는 현재 시행 중인 캐나다 농업 동반자협정(Canadian Agricultural Partnership, CAP)을 중심으로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질 대표
강호준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20학번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Em nome do Brasil, meus cumprimentos ao presidente da simblea geral, ao secretária geral, e aos todos delegados presidentes.

Nosso país realizou diversas políticas de socorro pra segurança alimentar com base na alta produtividade alimentar e fortaleceu a cooperação alimentar por meio da atuação ativa no mercosul. Por isso, o brasil está equipado com sistema de segurança alimentar estável interna e externamente.

Para segurança alimentar internacional, nosso país considerará o uso eficaz de alta produção de alimentos, e espero que uma forma de comunicação global possa ser preparada pela cooperação multilateral ativa com outros países.

Obrigado pela atenção.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들.
본국을 대표하여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국은 식량안보를 위해 자국의 높은 식량생산량을 토대로 다양한 구호정책을 실시하였고, 남미공동 시장인 메르코수르에서 주도적으로 식량협력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대내외적으로 안정적인 식량안보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본국은 세계적인 식량안보를 위해 높은 식량 생산량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해 제고할 것이며, 타국과의 적극적인 다자협력을 모색함으로써 범세계적으로 소통하는 길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대표
김민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19학번

Japan

議長、そして各国代表の皆様、

日本は太陽が昇る国という言葉のように、アジアを代表する先進国として、今まで世界の食糧安
保に貢献してきました。

しかし、去年と今年は世界的にとても厳しい年でした。特に食料品の輸出が中止され、いろんな国
で食糧危機が発生しました。

だが本国は、このような危機状況を見事に克服して見せました。FAOアジア・太平洋地域総会を
通じて、食料安保のための世界的な協力を図りました。そして、海外の農業分野に多くの投資と
支援をしました。

いま日本は開放的な世界市場を導くその先頭に立っております。本国は今回の総会を通じて国
際社会の協力が強化され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ご静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들,

일본은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라는 뜻처럼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으로서 지금까지 세계의 식량안
보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는 세계적으로 무척 힘든 해였습니다. 특히 식료품의 수출이 중지되면서 여러 나
라에 식량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훌륭히 극복해보였습니다. FAO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를 통해
식량 안보를 위한 세계적인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농업 분야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
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개방적인 세계 시장을 이끄는 선두에 섰습니다. 그렇기에 본국은 이번 총회를 통해 국제
사회의 협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eachte voorzitter, en vertegenwoordigers van elk land,
 In de zetel van samenwerking op het gebied van mondiale voedselzekerheid,
 is het de moeite waard om deel te nemen aan de Algemene Vergadering van de
 Verenigde Naties.

Nederland heeft actief deelgenomen aan multilaterale samenwerking en zal als
 vooruitstrevend landbouwland een verdere bijdrage blijven leveren. Nederland
 werkt momenteel samen met landen over de hele wereld om de internationale
 voedselzekerheid te bevorderen en om meer gebruik te maken van de
 binnenlandse ontwikkeling en praktijk van smartfarm. Dit zal een gelegenheid zijn
 om het post-coronatijdperk te overwinnen en de wereldwijde solidariteit buiten de
 Europese Unie te versterken.

Nederland belooft zich best te doen om de VN-doelen van voedselzekerheid te
 realiseren.

Dank u wel.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전 세계적 식량안보를 둘러싼 협력의 자리에,
 네덜란드가 유엔총회와 함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네덜란드는 다자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앞으로도 농업 선진국으로서 더 이바지할 것입니다.
 본국은 현재 국내 스마트팜 개발과 실행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손잡아
 국제 식량안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겨냄과 동시에 EU를
 넘어 전 세계적 연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국은 식량안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덜란드 대표
박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네덜란드어과 19학번

**Kingdom of
 Netherlands**



사우디아라비아 대표
김다연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 전공 18학번

Kingdom of
Saudi Arabia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السيد الرئيس، أصحاب السعادة، 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

إن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أصبحت أكثر قلقاً من الأمن الغذائي مع اضطراب سلاسل الإمدادات الغذائية العالمية الناتج من انتشار فيروس كورونا. ويرجع ذلك إلى أن المملكة تستورد معظم المواد الغذائية من الخارج بسبب البيئة غير المناسبة للزراعة.

ولذلك، وقد وضعت المملكة قضية الأمن الغذائي ضمن أولويات سياستها ونفذت مشاريع الأمن الغذائي المتنوعة. وخاصة، تركز رؤية السعودية 2030 على ضمان الأمن الغذائي والموارد المائية.

ونظراً لأن تعزيز الأمن الغذائي هو مهمتنا الأساسية، سنشارك بنشاط في التعاون المتعدد الأطراف مع المجتمع الدولي، بما فيها مجلس التعاون الخليجي لعدم استمرار أزمة الغذاء جراء كورونا.

و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

자비심 깊고 자애로운 알라의 이름으로,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알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세계 식량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농업에 불리한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국은 식량안보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다양한 식량안보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사우디 비전 2030'은 식량안보 및 수자원 확보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 강화가 본국의 핵심 과제인 만큼, 코로나발 식량위기가 지속되지 않도록 GCC국가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다자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ñor presidente, Líderes de Países, Damas y Caballeros.

Argentina es el primer exportador mundial de soja y tiene la tasa de autosuficiencia alimentaria más alta del mundo del 273%.

Además, estamos implementando la política "Argentina sin hambre" para asegurar un estable suministro de alimentos para nuestra gente.

Nuestra máxima prioridad es estabilizar la crisis alimentaria del país, que ahora se ha agravado debido al COVID-19.

Sin embargo, como país exportador mundial de alimentos, participaremos activamente en esta conferencia para convertirnos en un punto focal para responder a la crisis de seguridad alimentaria mundial.

Gracias por su atención.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장님,
각국 대표단,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세계 1위의 대두 수출국이자, 식량 자급률이 273%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국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배고픔 없는 아르헨티나" 정책을 실행하여 자국민들의 식량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국은 코로나 19로 인해 현재 심각해진 자국의 식량위기 안정을 최우선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식량수출국으로서 전세계의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타 국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식량위기 해결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 대표
장민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17학번

Republic of
Argentina



중국 대표
김행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외교통상전공 19학번

Republic of
China

尊敬的主席团、
各国的代表们、
同志们、朋友们！

当今世界正经历百年未有之大变局。

随着疫情恶化，我们中华人民共和国用实际行动展现了负责任的大国形象，为全世界的防疫斗争作出了重要贡献。

中华人民共和国迅速应对去年本国遭遇的粮食安全危机，确保了目前的稳定状态。

当今全世界粮食安全正在成为热门话题，中华人民共和国将为遭受粮食危机的国家扩充农业基础设施提供支援。

同志们、朋友们！

为了解决粮食安全问题，需要所有国家的努力。

对此，我们中华人民共和国承诺不遗余力。

谢谢！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동지들이여, 친구들이여!

현재 세계는 100년만의 대 격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은 책임 있는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며 전 세계의 방역 투쟁에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지난해 식량안보 위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확보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식량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은 식량 위기를 겪는 국가들의 농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동지들이여, 친구들이여!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नमस्कार

Honorable chair, Fellow delegates, Ladies and gentlemen

Based on large number of people and broad territory, India has grown to become the third-largest cereal producer in the world. Agriculture, a means of livelihood for 58 percent of India's population, is an important industry that is directly linked to our economy and to the lives of our people.

India sees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is the key for long-term food security. Through enacting new agricultural bill, establishing our own online agricultural market (e-Nam), and introducing eco-friendly technologies, India is making efforts to promote technologically, environmentally, and economically sustainable agriculture.

India hopes this assembly to be a gathering in strengthening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agriculture to ensure stable food security in the upcoming Post-Covid-era. This delegation promis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multilateral cooperation designed to protect food security peacefully.

Thank you.

नमस्कार(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대표단,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를 기반으로, 인도는 세계 곡물 생산국 3위로 성장하였습니다. 인도 인구 58%에게 생계 수단인 농업은 자국 경제,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장기적인 식량 안보를 영위하기 위해 인도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국은 농업개혁법을 제정하고, 온라인 농업 시장인 e-Nam을 구축하며, 친환경 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등 기술, 환경,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는 본 총회를 통해 국가 간 농업 기술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안정적인 국제 식량 안보가 확보되길 기대합니다. 본국은 식량 안보를 평화적으로 지키기 위해 마련된 본 다자 협력의 자리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도 대표
최승주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Trade 전공 18학번

Republic of
India



대한민국 대표
최민주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전공 19학번

Republic of
Korea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대전환으로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식량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세계 열한 번째 규모의 식량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발전 경험을 식량 취약국과 공유하며 국제 사회의 식량 문제 해결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본국은 이번 총회를 통해 전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식량 공급망이 구축되길 희망합니다.

본국 또한 식량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내외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Sayın Başkan, değerli devlet ve hükümet başkanları

Sayın Genel Sekreter ve kıymetli delegeler

Sizleri millet adına saygıyla selamlıyorum

Hazreti Mevlana hayattayken “Ümitsizliğin arıdından nice ümitler var, karanlığın arıdından nice güneşler var” dedi. Bu sözle günümüzde Covid-19 nedeniyle büyük zararlar gören ülkeler ve halkları teselli ediyorum.

Türkiye Cumhuriyeti, cumhuriyetin kurucusu olan Mustafa Kemal Atatürk’ün “ Türkiye’nin gerçek sahibi ve efendisi, gerçek üretici olan köylüdür” sözüne dayanarak 2019 yılında %92.4 olan tahıl alanında kendine yeterliliği sağladı.

Ayrıca Türkiye, devlet kurumu olan TİKA aracılığıyla gıda arzı üzerinde zorlanan ülkelerin gıda yeterliliği için çok sayıda işbirliğinde bulundu.

Türkiye, Pademiden itibaren uluslararası camiaya çok yönlü yardım sağlamaya devam ediyor. Ve ileride yapılacak gıda güvenliği için çok taraflı işbirliğine de aktif olarak katılacaktır.

Hepinizi millet adına tekrar saygıyla selamlıyorum. Teşekkür ediyorum.

친애하는 의장님, 각국의 지도자 여러분,
친애하는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단 여러분
여러분들께 민족의 이름으로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신성한 이슬람 성인 메블라나는 ‘절망을 지나면 소망이 있고, 어둠을 지나면 햇빛이 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있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터키 공화국은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터키의 진실된 주인과 주권자는 진실을 만들어내는 농민들이다’ 라는 어록에 의거하여 2019년에 92.4%의 농업 분야에서 식량자급률을 수호했습니다.

또한 정부 기구 TİKA를 통하여서 식량 공급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식량 자립을 위하여 많은 협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터키는 팬데믹 이후에도 지구촌 이웃들에게 모든 범위에서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민족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터키 대표
김승권

Hacettepe University
History 19학번

Republic of
Turkey



독일 대표
서진욱

송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14학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Sehr geehrter Präsident,
sehr geehrten Vertreterinnen und Vertreter Ihrer Länder,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Wir alle haben in der Postcorona-Ära schwierige Zeiten durchmachen müssen. Und wir müssen auch jetzt gesammelt unser Bestes geben, um diese schweren Zeiten hinter uns zu lassen.

Das Land plant und forciert seit langem verschiedene Projekte, um die Einführung neuer Technologien für eine nachhaltige Landwirtschaft im Sinne von Smart Farming zu fördern.

Bei dieser Generalversammlung sterben wir als Land eine positive multilaterale Zusammenarbeit auf der Grundlage des Schutzhandelsystems an.

Darüber hinaus erfordert es eine systematische Strategie, welche die negativen Auswirkungen der Covid 19 Krise auf unsere Ernährungssicherheit minimiert und gleichzeitig zu signifikantem Wirtschaftswachstum führt.

Deutschland wird sich dafür sowohl auf regionaler, nationaler als auch globaler Ebene einsetzen.

Vielen Dank.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힘든 나날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국은 오래전부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유도하고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본국은 보호무역 체제에 기반하여 긍정적인 다자협력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또한, 식량안보에 있어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독일은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Xin kính chào chủ tịch, các vị đại biểu, quý vị.

Vị thế của Việt Nam đang ngày càng tăng lên vào thời kỳ hậu Covid-19.

Việt Nam đang nhận thức được vai trò quan trọng của một đất nước xuất khẩu gạo ra thế giới trong cuộc khủng hoảng lương thực. Việt Nam đã đối phó với khủng hoảng lương thực thông qua các biện pháp hạn chế xuất khẩu gạo. Hơn nữa Việt Nam đang áp dụng nông nghiệp công nghệ cao để sản xuất lương thực ổn định.

Hiện tại chúng ta cần sự hợp tác toàn cầu để giải quyết cuộc khủng hoảng lương thực. Việt Nam cam kết sẽ tìm ra các biện pháp thông qua hợp tác đa phương với các quốc gia dựa trên sự ổn định về an ninh lương thực của Việt Nam.

Xin cảm ơn

존경하는 의장님과 각국 대표단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베트남의 위상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식량 위기에 있어 세계적 쌀 수출국인 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쌀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해 식량 위기에 대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곡물 생산을 위한 하이테크 농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은 본국의 식량 안보 안정화를 기반으로 타국과 다자협력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대표
이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16학번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영국 대표
임우균

연세대학교
동아시아국제학부 21학번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Dear Honorable Chair,
Dear distinguished delegates,
and most importantly, ladies and gentlemen,

It is an honour for the United Kingdom to participate in this exquisite assembly. Her majesty expresses her solidarity with all battling this pandemic.

We are experiencing unprecedented struggles due to Brexit and Covid. However, we are working day and night to overcome this situation. In terms of food security, respected government departments, charity organizations, and local communities are cooperating to tackle this problem.

As the president of the G7, United Kingdom will not stop at domestic levels and will work towards heightening global food security. We will not only provide financial aid such as GAFSP but will also achieve multilateral coordination with countries in food crisis in accordance with IHL.

By the name of her Majesty,
May God bless you all.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이번 영예로운 총회에 영국이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에 맞서 싸우는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십니다.

본국은 브렉시트와 유례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 안보 차원에서는 각 정부 부처와 자선 단체, 현지 소상공인들이 협력하여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국내적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G7의 수장으로서 국제적인 식량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GAFSP와 같은 자금 원조 뿐만 아니라 국제인도법(IHL)의 준수 하에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과 다자협력을 이뤄낼 것입니다.

여왕 폐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Viva la vida.

Señor Presidente, Líderes de Países, Damas y Caballeros,

Debido al COVID19, muchos países han cerrado sus fronteras y ha prevalecido el proteccionismo. Sin embargo, en esta situación, México expandió la exportación de granos y se comprometió a cooperar con los países de América para la seguridad alimentaria.

Querría promover la cooperación con los países aquí, por el libre mercado de alimentos, la cadena de suministro estable de alimentos y el desarrollo de tecnologías agrícolas sustentables. Espero que este lugar sea para la vida de todas las personas en el mundo y sea una oportunidad para fortalecer el valor del libre comercio y la cooperación.

Viva la vida. Muchas gracias.

Viva la vida.(삶이여, 만세)

존경하는 의장님, 각 국의 대표단,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국경을 닫았고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멕시코는 곡물 수출을 확대했고, 아메리카 국가들과 식량안보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는 자유로운 식량시장,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본 총회에 참석한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위한, 자유무역 그리고 협력의 가치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이여, 만세. 감사합니다.



멕시코 대표
이주희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전공 16학번

United
Mexican
States



미국 대표
김나현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협력전공 21학번

United
States of
America

Thank you.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maintained excellent food security system before COVID-19, ranking at number one for five years in the Global Food Security Initiative.

Also, this nation has become a pivotal country in global food security by constructively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agricultural R&D and investment.

Meanwhile, the U.S., the world's leading exporter of agricultural products, is confronted with difficulty due to restrictions on the export of American agricultural products.

In this respect, this country raises the necessity of discussing agricultural export restrictions and asserts that cooperation should be made under the principle of free market.

Today, global food security is threatened in the aftermath of COVID-19. W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show the best leadership and put forth efforts to overcome this crisis together.

God bless America, and God bless the world.

감사합니다.

미합중국은 코로나 19 이전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5년간 1위를 기록하는 등 매우 우수한 식량안보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글로벌 식량안보 정책에 5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국제 농업 연구개발 및 투자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에 중추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산 농산물 수출규제로 인해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인 본국은 해당 교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농산물 수출규제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제고하며, 자유로운 시장 아래 식량안보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우리 미합중국은 최고의 리더십을 선보이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신께서는 미국을, 그리고 세계를 축복합니다.

결의안 초안



미국, 멕시코, 캐나다, 영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베트남,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르헨티나, 독일, 네덜란드, 브라질

General Assembly_

Distr. Limited
A/C.1/45/L1
2021년 8월 28일
Original: KOREAN

THIRD COMMITTEE

Post-Covid Era, Seeking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Food Safety

Forty-Fifth Session

SEOUL, 2021.8.28
Agenda Item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 모색

국제연합 총회는,

식량안보가 세계 시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님을 **인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범세계적 노력이 필요함을 **상기하며**,

팬데믹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형성을 **촉구하며**,

1 지속가능한 농업과 동반자적인 식량안보 강화를 **추구하며**,

(a) 국제적으로 식량안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농업 분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i) 원조 공여국은 자원과 더불어 기술, 교육, 시스템에 대한 협력을 지원하며 수혜국은 주체적으로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ii)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 NGO, MNC 등의 민간 주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iii) IoT,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농업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플랫폼을 구축 및 발전시킨다;

(b) 모든 회원국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i) 저탄소 농업, 축산업, 어업 등에 대한 녹색 성장 전략을 각국의 식량안보 목표로 고려한다;

(ii) 다자적인 농업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을 약속한다;

(c)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를 통해 식품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에 대한 국제 표준 도입을 장려한다;

2 국제적인 농식품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a) 농식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식품 수출입 규제를 완화한다;

(i) 회원국은 관세평가와 농업 등 WTO 수출입 규제 협정을 준수한다;

(ii)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수출 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특정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일방적 수입 제한 조치를 규탄한다;

(b) 식품 공급망의 붕괴 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식품 유통망의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i) 대규모 식품산업단지의 방역지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한다;

(ii) 회원국이 식품의 생산, 소비, 재고 수준 등을 디지털화하여 농산물 물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한다;

(iii) 주요 식품 수출 품목의 경우 회원국이 정부 간 데이터를 교류한다;

3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기술 선진 국가들의 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 (a) 기술 이전 국가와 기술 수혜 국가 상호 이익적인 방향으로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 (i) 기술 선진 국가가 수혜 국가에 투자함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절차나 규제 등을 마련한다;
 - (ii) 기술 수혜 국가는 기술 이전 국가 및 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 (b) 스마트팜, ICT 기술, 바이오공학 기술, 곡물 저장 및 수송 인프라 구축 기술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기술협력체를 마련한다;
 - (i) 국가 간 마련된 기술 협력체는 식량안보 문제의 해결을 우선 목표로 삼는다;
 - (ii) 기술 선진국가는 앞서 언급된 기술 협력을 위해 기술 수혜국가의 정부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한다;
 - (iii) 자금 기반의 부재로 식량안보와 관련된 4차 산업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 더딘 국가를 대상으로 공동 투자를 장려한다;

4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발맞춘 식량수급 안정화 정책을 **강구하며**,

- (a) 안정적인 식량 비축량을 마련하고 식량수급을 다각화하기 위해 해외농지 투자 사업을 확장한다;
 - (i) 기후변화에 따른 농경지 면적 감소로 국내 식량생산의 지속성을 위협받고 있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투자 사업을 실시한다;
 - (ii) 해외 농지 조성국은 투자 대상국의 농업기술 향상에 기여, 사회 및 경제 인프라 확충, 일자리 생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 (iii) 해외 농지 조성국은 노동인권을 충분히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투자국과 바람직한 농업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 (b) 재난재해 등의 위기 상황이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i) FAO와 협력하여 식량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된 합리적인 제재를 마련하고 이의 기준을 따른다;
 - (ii)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생산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수처리 및 관개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에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를 마련한다;
 - (iii) 식량수입국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식량공급 상황을 고려해 관세 및 검역을 완화하여 식량 조달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강화한다;

공식-비공식 회의



미국, 멕시코, 캐나다, 영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베트남,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르헨티나, 독일, 네덜란드, 브라질

General Assembly

Distr. Limited
A/C.1/45/L.1
2021년 8월 28일
Original: KOREAN

THIRD COMMITTEE

Post-Covid Era, Seeking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Food Safety

Forty-Fifth Session

SEOUL, 2021.8.28
Agenda Item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 모색

국제연합 총회는,

식량안보가 세계 시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님을 **인지하고, Agreed ad ref**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범세계적 노력이 필요함을 **상기하며, Agreed ad ref**

팬데믹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형성을 **추구하며, Agreed ad ref**

1 지속가능한 농업과 동반자적인 식량안보 강화를 **추구하며, Agreed ad ref**

(a) 국제적으로 식량안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농업 분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Agreed ad ref**

(i) 원조 공여국은 자원과 더불어 기술, 교육, 시스템에 대한 협력을 지원하며 수혜국은 주체적으로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Agreed ad ref**

(ii)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 NGO, MNC 등의 민간 주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Agreed ad ref**

(iii) IoT,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농업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플랫폼을 구축 및 발전시킨다;

Agreed ad ref

(b) 모든 회원국은 **[TUR, ADD : 자국의 실정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여된]**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i) 저탄소 농업, 축산업, 어업 등에 대한 녹색 성장 전략을 각국의 식량안보 목표로 고려한다;

Agreed ad ref

(ii) 다자적인 농업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을 약속한다; **Agreed ad ref**

(c)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를 통해 식품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에 대한 **[GER, REP : 국제 표준 도입을 국가별 정형화된 규칙 도입을]** 장려한다.

2 국제적인 농식품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Agreed ad ref**

(a) 농식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식품 수출입 규제를 완화한다; **Agreed ad ref**

(i) 회원국은 관세평가와 농업 등 WTO 수출입 규제 협정을 준수한다; **Agreed ad ref**

[ARG, DEL : (ii)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수출 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특정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일방적 수입 제한 조치를 규탄한다;]

(b) 식품 공급망의 붕괴 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식품 유통망의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Agreed ad ref

(i) 대규모 식품산업단지의 방역지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한다; **Agreed ad ref**

(ii) 회원국이 식품의 생산, 소비, 재고 수준 등을 **[SAU, REP : 디지털화하여 디지털화 실현을 위한 첨단기술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농산물 물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한다;

[CHI, DEL : (iii) 주요 식품 수출 품목의 경우 회원국이 정부 간 데이터를 교류한다.]

3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기술 선진 국가들의 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Agreed ad ref**

(a) 기술 이전 국가와 기술 수혜 국가 상호 이익적인 방향으로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Agreed ad ref**

(i) 기술 선진 국가가 수혜 국가에 투자함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절차나 규제 등을 마련한다;

Agreed ad ref

(ii) 기술 수혜 국가는 기술 이전 국가 및 기업에게 **[MEX, DEL: 세금을 감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VNM, REP: 약속한다; 권장한다:]**

(b) 스마트팜, ICT 기술, 바이오공학 기술, 곡물 저장 및 수송 인프라 구축 기술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기술협력체를 마련한다; **Agreed ad ref**

(i) 국가 간 마련된 기술 협력체는 식량안보 문제의 해결을 우선 목표로 삼는다; **Agreed ad ref**

(ii) 기술 선진국가는 앞서 언급된 기술 협력을 위해 기술 수혜국가의 정부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한다; **Agreed ad ref**

(iii) 자금 기반의 부재로 식량안보와 관련된 4차 산업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 더딘 국가를 대상으로 공동 투자를 장려한다; **Agreed ad ref**

4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발맞춘 식량수급 안정화 정책을 **강구하며, Agreed ad ref**

(a) 안정적인 식량 비축량을 마련하고 식량수급을 다각화하기 위해 해외농지 투자 사업을 확장한다; **Agreed ad ref**

(i) 기후변화에 따른 농경지 면적 감소로 국내 식량생산의 지속성을 위협받고 있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투자 사업을 실시한다; **Agreed ad ref**

(ii) 해외 농지 조성국은 투자 대상국의 농업기술 향상에 기여, 사회 및 경제 인프라 확충, 일자리 생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Agreed ad ref**

(iii) 해외 농지 조성국은 노동인권을 충분히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투자국과 바람직한 농업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Agreed ad ref**

(b) 재난재해 등의 위기 상황이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Agreed ad ref**

(i) **[USA, DEL : FAO와 협력하여 식량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된 합리적인 제재를 마련하고 이의 기준을 따른다:]**

(ii)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생산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수처리 및 관개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에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를 마련한다; **Agreed ad ref**

(iii) **[GBR, DEL : 식량수입국은 위기 상황 발생 시 관세 및 검역을 완화하여 식량 조달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강화한다.]**

최종 결의안



미국, 멕시코, 캐나다, 영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베트남,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르헨티나, 독일, 네덜란드, 브라질

General Assembly_

Distr. Limited
A/C.1/45/L1
2021년 8월 28일
Original: KOREAN

THIRD COMMITTEE

Post-Covid Era, Seeking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Food Safety

Forty-Fifth Session

SEOUL, 2021.8.28
Agenda Item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안보를 위한 다자협력 모색

국제연합 총회는,

식량안보가 세계 시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님을 **인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범세계적 노력이 필요함을 **상기하며**,

팬데믹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한 다자협력 체계 형성을 **추구하며**,

1 지속가능한 농업과 동반자적인 식량안보 강화를 **추구하며**,

(a) 국제적으로 식량안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농업 분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i) 원조 공여국은 자원과 더불어 기술, 교육, 시스템에 대한 협력을 지원하며 수혜국은 주체적으로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ii)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 NGO, MNC 등의 민간 주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iii) IoT,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농업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플랫폼을 구축 및 발전시킨다;

(b) 모든 회원국에게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i) 저탄소 농업, 축산업, 어업 등에 대한 녹색 성장 전략을 각국의 식량안보 목표로 고려한다;

(ii) 다자적인 농업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을 약속한다;

(c)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를 통해 유통 관련 식품 안전에 대한 국제 표준 도입을 장려한다;

2 국제적인 농식품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a) 농식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식품 수출입 규제를 완화한다;

(i) 회원국은 관세평가와 농업 등 WTO 수출입 규제 협정을 준수한다;

(ii) 식량안보가 확보된 식량 수출국의 과도한 수출 제재를 제재하고, 특정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일방적 수입 제한 조치를 규탄한다;

(b) 식품 공급망의 붕괴 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식품 유통망의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i) 대규모 식품산업단지의 방역지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한다;

(ii) 회원국이 식품의 생산, 소비, 재고 수준 등을 디지털화 실현을 위한 첨단기술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농산물 물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한다;

(iii) 주요 식품 수출 품목의 경우 회원국 간 상호 호혜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교류할 것을 장려한다;

3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기술 선진 국가들의 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 (a) 기술 이전 국가와 기술 수혜 국가 상호 이익적인 방향으로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 (i) 기술 선진 국가가 수혜 국가에 투자함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절차나 규제 등을 마련한다;
 - (ii) 기술 수혜 국가는 기술 이전 국가 및 기업에게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 (b) 스마트팜, ICT 기술, 바이오공학 기술, 곡물 저장 및 수송 인프라 구축 기술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기술협력체를 마련한다;
 - (i) 국가 간 마련된 기술 협력체는 식량안보 문제의 해결을 우선 목표로 삼는다;
 - (ii) 기술 선진국가는 앞서 언급된 기술 협력을 위해 기술 수혜국가의 정부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한다;
 - (iii) 자금 기반의 부재로 4차 산업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 더딘 국가를 대상으로 공동 투자를 장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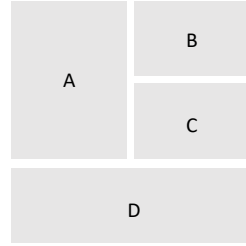
4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발맞춘 식량수급 안정화 정책을 **강구하며**,

- (a) 안정적인 식량 비축량을 마련하고 식량수급을 다각화하기 위해 해외농지 투자 사업을 확장한다;
 - (i) 기후변화에 따른 농경지 면적 감소로 국내 식량생산의 지속성을 위협받고 있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투자 사업을 실시한다;
 - (ii) 해외 농지 조성국은 투자 대상국의 농업기술 향상에 기여, 사회 및 경제 인프라 확충, 일자리 생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 (iii) 해외 농지 조성국은 노동인권을 충분히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투자국과 바람직한 농업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 (b) 재난재해 등의 위기 상황이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i) WTO는 FAO와 협력하여 WTO의 불명확한 조항들을 구체화하여 식량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된 합리적인 제재를 마련하고 이의 기준을 따른다;
 - (ii)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생산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수처리 및 관개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에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안을 마련한다;
 - (iii) 식량수입국은 위기 상황 발생 시 관세를 완화하여 식량 조달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강화한다;

구성원 소개

A	B	A. 안전보장이사회
C	D	B. 학술지원팀
E	F	C. 대외협력팀
		D. 홍보전략팀
		E. 사무국
		F. 기획예산팀





- A. 사회자
- B. 서포터즈
- C. 통역이사회
- D. 대표단



사무국 소개

사무총장

HIMUN을 대표하여 각 팀의 일정 조율 및 업무를 총괄 지휘하여 HIMUN 대내외 행사 및 총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검토, 집행한다.



사무총장
김예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8학번

학술지원팀

HIMUN의 학술적 지식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와 통역이사회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활동하며 사무국 스터디, 세미나, 회합 등을 통해 UN과 총회 의제에 대한 기본적 지식 축적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사무국, 대표, 그리고 통역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실시한다.



학술지원팀원
김서운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언어문화전공 20학번



학술지원팀원
오승민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전공
19학번



학술지원팀원
이선영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전공
20학번



학술지원팀원
이준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21학번



학술지원팀원
지수빈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전공
19학번

기획예산팀

HIMUN의 크고 작은 행사를 기획하는 것 뿐만 아니라 HIMUN의 특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총회 당일에 상영되는 영상을 기획한다. 또한 원활한 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안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기획예산팀장
백희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19학번



기획예산팀원
권윤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19학번



기획예산팀원
마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학부
21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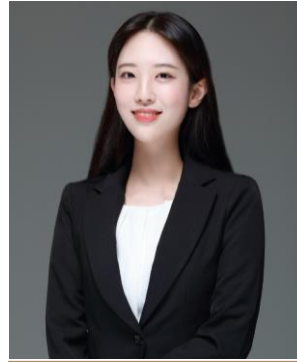


기획예산팀원
한은빈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 18학번

대외협력팀

공동주최를 비롯한 정부기관, 대사관, UN기구 등에 총회 당일 행사를 위한 대외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총회 당일 이외에도 HIMUN 각 팀의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후원과 협찬 형식의 대외적 협력을 담당한다.



대외협력팀장
김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전공
20학번



대외협력팀원
강민수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학부
21학번



대외협력팀원
문지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18학번



대외협력팀원
이수민

한국외국어대학교
페르시아어·이란학과 18학번



대외협력팀원
이충민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전공
20학번

홍보전략팀

HIMUN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를 담당한다. 구성원 선발과 총회 홍보를 위해 포스터, 팸플릿 등의 홍보 물품을 제작, 관리하고 이를 이용해 실질적인 홍보를 시행한다. 서포터즈의 교육 및 활동 또한 총괄한다.



홍보전략팀장
안소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전공 20학번



홍보전략팀원
김유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전공 19학번



홍보전략팀원
김지현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전공
20학번



홍보전략팀원
김해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21학번



홍보전략팀원
안은빈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 21학번



홍보전략팀원
이아람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21학번

사회자 소개



한국어 사회자
이혜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15학번



영어 사회자
신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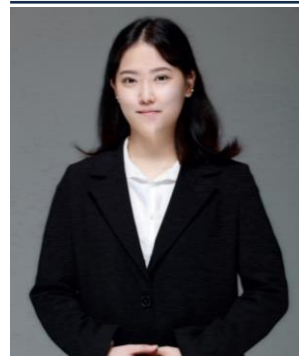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학과 19학번

대표단 소개



의장
이승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17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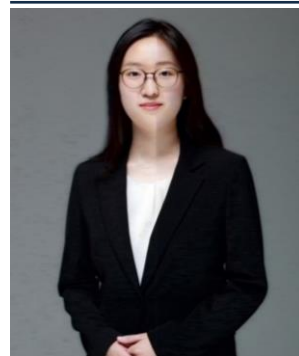
캐나다 대표
송다영

Queen's University, Canada
Commerce 20학번



브라질 대표
강호준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20학번



일본 대표
김민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19학번



네덜란드 대표
박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네덜란드어과 19학번



사우디아라비아 대표
김다연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전공
18학번



중국 대표
김행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외교통상전공 19학번



대한민국 대표
최민주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전공 19학번



인도 대표
최승주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Trade전공
18학번



터키 대표
김승권

Hacettepe University
History 19학번



아르헨티나 대표
장민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17학번



베트남 대표
이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16학번



독일 대표
서진욱

송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14학번



멕시코 대표
이주희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전공
16학번



영국 대표
임우균

연세대학교
동아시아국제학부 21학번



미국 대표
김나현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협력전공 21학번

통역이사회 소개



한국어 통역
이주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외교통상전공 19학번



한국어 통역
양서연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20학번



영어 통역
이하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19학번



영어 통역
전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21학번



프랑스어 통역
박준하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학부 18학번



프랑스어 통역
박준흠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학부 18학번



중국어 통역
나나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18학번



중국어 통역
조정욱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외교통상전공 17학번



스페인어 통역
정서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통번역학과 17학번



스페인어 통역
한태희

송실대학교
경영학부 15학번



러시아어 통역
김민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18학번



러시아어 통역
이예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18학번



아랍어 통역
백숙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19학번



아랍어 통역
장준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통번역학과 16학번

서포터즈 소개



서포터즈
김봉규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18학번



서포터즈
김지윤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19학번



서포터즈
신재윤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1학번



서포터즈
이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19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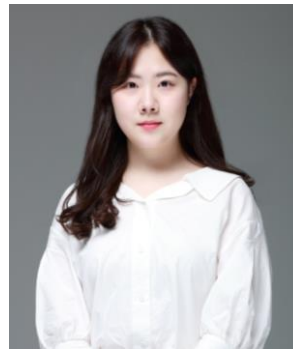
서포터즈
이승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통번역학과 20학번



서포터즈
임소미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21학번



서포터즈
임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 21학번



서포터즈
최지은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8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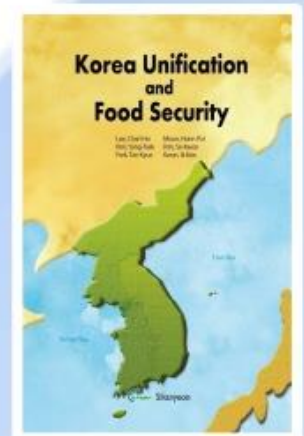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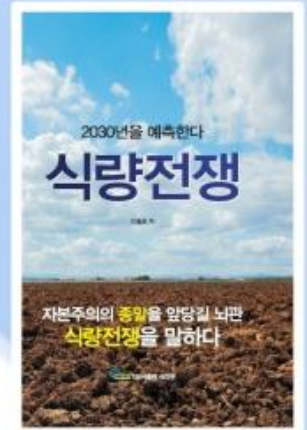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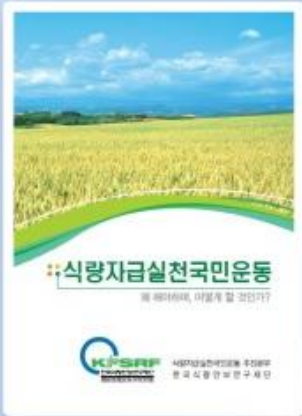


서포터즈
허서윤
경성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20학번

Korea Food Security Research Foundation



대한민국 식량 공급·식품안전을 지키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FILA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만듭니다”

글로벌 패션의류 전문기업 주식회사 팬코.

1만 7,000명의 임직원들이 세계 의류시장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팬코 비나



서울 본사 사옥



팬코 명탕

“고맙습니다”

주식회사 팬코는 1984년 의류제조수출기업으로 창업한 이래 지난 35년간 지속성장을 실현 하였습니다. 현재는 아시아 주요국에 최첨단 버티컬시스템을 갖춘 4개의 현지법인과 6개의 대단위 생산기지를 가동하며 글로벌선진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팬코가 그동안 찬연한 성장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이트진로음료

#세상 #처음 #까만보리차 #진하고 #깔끔해

블랙보리



Korean Tea **Black Bori**

제45차 하이문 자문위원

독일어교육과 Christian Horn 교수님

ELLT 장태엽 교수님

네덜란드어과 Andreas 교수님

프랑스어학부 Sabine Song 교수님

일본언어문화학부 Kozawa Yasunori 교수님

베트남어과 Phúc Nguyễn Văn 교수님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Nadir Engin Uzun 교수님

노어과 Olga Vitalyevna Khorokhordina 교수님

아랍어과 Salahedin Abdelaziz 교수님

의제 및 역사

1958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 창설

- || 제1차 1958년 UN군축 The Armament Reduction of UN
- || 제2차 1963년 중공 UN 가입 The Entry of Red China into the UN
- || 제3차 1964년 한국 UN 가입 The Entry of Korea into the UN
- || 제4차 1965년 케시미르 전쟁 The International Dispute of Cassimir
- || 제5차 1966년 한반도 통일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 || 제6차 1967년 중동분쟁 The International Dispute of Middle-East Asia
- || 제7차 1968년 체코분쟁 The Czechoslovakia Program
- || 제8차 1969년 월남분쟁 The Vietnam War
- || 제9차 1970년 중동문제 The Middle-East Asia Program
- || 제10차 1973년 남북한 UN 동시가입 The Simultaneous Entry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into the UN
- || 제11차 1982년 국제테러 International Terrorism
- || 제12차 1983년 핵확산방지과 평화적 이용 Non-Proliferation of Nucleus and its Peaceful Use
- || 제13차 1989년 핵무기 감축과 세계 평화 Nuclear Weapon Disarmament and World Peace
- || 제14차 1990년 환경파괴와 인류의 위기 Environment Disruption and Human Crisis
- || 제15차 1991년 신 국제질서와 지역통합 The New International Order and Regional Integration
- || 제16차 1992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남북협력 South-North Cooperation for Global Environment Preservation
- || 제17차 1993년 21세기 UN의 역할과 평화 기능 The Role of UN & Peace Function
- || 제18차 1994년 WTO의 출범과 신 국제질서의 모색 The Beginning of WTO & the Advance NIEO
- || 제19차 1995년 인간 안보와 국제사회 정의의 실현 Human Secur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Justi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 || 제20차 199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질서 재편 The Rearrangement of Order in Asia-Pacific Region
- || 제21차 1997년 21세기 지역블록화와 UN의 역할 변화 Emerging Regional Blocs in the 21st Century and the changing the Role of the UN
- || 제22차 1998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신 해양질서 확립 Establishment of New Maritime Ord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 제23차 1999년 21세기 시민사회건설을 위한 NGO의 위상과 역할 The Phase and the Role of the NGOs for Construction of the 21st Century Civil Society
- || 제24차 2000년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신안보체제의 확립 Establishment of the New Dimensions of Security for Peace and Coexistence of Human Race
- || 제25차 2001년 새로운 정보질서 확립을 통한 문명 간의 대화 Communication among Civilizatio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Order of Information
- || 제26차 2002년 진정한 의미의 세계평화와 유엔의 역할 UN, As the True Leader for the World Peace
- || 제27차 2003년 난민에 관한 국제 사회의 협력증진 The Advancement of Global Cooperation of Refugees
- || 제28차 2004년 무역 자유화를 위한 국제협력증진 Promot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rade Liberalization Efforts
- || 제29차 2005년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노력 The Role and Effort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Peace in the Middle East
- || 제30차 2006년 기후변화협약과 국제사회의 책임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in Climate Change and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Society
- || 제31차 2007년 MDGs 달성을 향한 ODA :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뉴 파트너십 ODA for Achieving the MDGs : A New Partnership for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 || 제32차 2008년 Post-2012 기후변화체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역할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a Post-2012 Climate Change Framework
- || 제33차 2009년 대체에너지 보급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역할부담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 Society's Roles concerning Alternative Energy Sources Development Cooperation
- || 제34차 2010년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 || 제35차 2011년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노력 The Role and Effort of International Society to Combat Desertification
- || 제36차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방안 모색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 || 제37차 2013년 세계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국제 협력방안 모색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 || 제38차 2014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 제39차 2015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 모색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 in DPRK
- || 제40차 2016년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과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모색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 || 제41차 2017년 보호무역주의 흐름의 대두에 따른 신 국제질서 모색 Seeking a New International Order in the Rise of Protectionism Flow
- || 제42차 201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질서 안정을 위한 다자협력 방안 모색 Promo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the stabilization of Asia-Pacific Regions
- || 제43차 2019년 4차 산업혁명시대, 신 디지털 통상규범 모색 4th Industrial Revolution, Searching for New Digital Trade Standard
- || 제44차 2020년 신 기후체제 하, 미래 산림을 위한 국제적 거버넌스 마련 Establishing international governance for future forests under the new climate system

후원 및 협찬

-주최-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후원-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도서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립식량과학원
주한인도대사관
주한터키대사관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한독일대사관
FAO한국협회
UNESCAP-ENEA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대자연
(재)현마육영재단
하영호장학재단
한국NGO신문
(주)대학저널
(주)한국농업신문사
농업경제신문

-협찬-

힐라코리아(주)
(주)팬코
하이트진로음료(주)



The 45th HIMUN General Assembly

주최



후원



한국NGO신문 대학저널 한국농업신문

협찬

